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 적성 · 인성면접 [사범대학]

제시문 [1]

학업 실패는 학습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험을 의미하며, 종종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피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특히 시험과 같은 고부담 상황에서는 실패가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업 실패는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학업 실패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있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학습 동기와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 실패가 항상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실패를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실패 내성(failure tolerance)”이라고 한다.

학업 실패의 원인은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성취 압력, 학교생활 적응 정도, 사회문화적 성공 인식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업 실패를 무기력이나 스트레스, 나아가 정서적 트라우마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계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학업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는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성장 중심 마음가짐(growth mindset)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시문 [2]

한국 사회 전반에서 마음건강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 범불안장애 경험률, 자살률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1년 사이 모두 악화되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42.3%로, 1년 사이 5% 증가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자살률 역시 상승하여,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 청소년 자살률은 2016년 1.3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증가한 이후 꺾이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는 생활의 계획과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은 적절한 뇌 발달을 저해하여 전 생애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마음건강 위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디지털 콘텐츠 중독,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일부 위기 청소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마음건강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